

흡연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 유형

한경순* · 문선영** · 최용희*** · 오복창**** · 김신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담배가 인류에게 소개된 이후로 흡연 행위는 인간의 기호 행위 중 가장 널리 애용 되어왔다. 그러나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학문적으로 증명되면서 각 국에서 각 학문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로 흡연이 인류 건강에 얼마나 해를 끼치고 있는지가 통계적으로 밝혀지고 있다(Moon, 1995). 질병과 사망을 예방하는데 있어 가장 조절 가능한 요인은 또한 흡연으로 밝혀졌는데 흡연의 주된 피해는 심장질환과 폐암으로 매년 미국에서 40만 명 이상이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흡연은 일차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장기, 그리고 조직의 조기 노화를 일으켜 수명을 단축시키고 성인병, 노쇠현상, 피부노화 등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담배의 연기 속에는 4,000여 종의 유독 물질 및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한 두 번의 흡연으로 건강에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나 일단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매일 30-40분에 한 대 씩 수십 년을 지속적으로 피우게 되기 때문에 독성물질의 축적작용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Community Health Center Data, 2001).

흡연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의존증을 생기게 하

여 정신과에서는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을 마약중독 환자로 분류하여 치료하고 있다. 또한 흡연의 간접적인 피해로 담배를 피우는 본인 뿐 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연구 결과 증명되었다. 따라서 세계 각 국에서는 흡연 장소와 금연 장소를 법으로 구분하여 혐연권을 주장하며 흡연자에 대한 각종 법적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Family Medicine, 1997).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함께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한 혼란과 복잡한 변화로 내, 외적 경험을 통합하고 성숙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건강문제는 다양한데, 여기에는 흡연, 음주, 약물, 흡입제의 남용, 성 문제 등이 포함되며, 이는 심각한 사회 전체 문제가 되고 있다(Kim, 1997).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학원의 자유화 물결이 일어나면서 보다 자유로워지자 평소 담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 학생들이 무엇보다 먼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담배를 시작하는 연령이 계속 낮아지면서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흡연을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다.

금연운동 협의회의 조사에 의하면, 중학생의 경우 1988년 남학생 흡연률이 2.7% 이었던 것이 1999년 6.2%로 증가하였으며 여학생도 1991년 1.2%에서 1999년 3.1%로 흡연률이 증가하였다(Ji, 1993).

* 신흥대학 간호과, 교신저자
** 신흥대학 간호과
*** 도봉여자중학교 양호교사
**** 난우중학교 양호교사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우리의 청소년들은 흡연이 조장되는 사회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텔레비전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담배광고도 여기저기 난무하고 있다. 흡연 청소년의 57%는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정에서의 흡연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Au, 2000).

또한 청소년의 흡연 원인으로는 또래 집단의 일원이 되기 원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어서이며, 흡연 시작시기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가장 많이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olescence Protection Association Health & Medication Part Conference Data(2001). 현재 전국 중, 고등학교 흡연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흡연시작 연령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Kim, 1992).

따라서 흡연 중학생이 금연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흡연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흡연에 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실제적인 자료가 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초기에 속하는 흡연 중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흡연의 태도에 대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흡연 중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에 대한 각각의 서로 다른 태도를 고려한 간호 중재를 수행할 때만이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흡연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재 흡연을 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의 구조를 확인하고 이해하며 이를 금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간호실무 적용에 지침으로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흡연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흡연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의 구조를 확인하고 유형화한다.
3. 흡연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흡연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2. 연구 절차

1) Q 표본 표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흡연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의 Q 진술문을 확정하기 위하여 심층면접, 구조적 개방형 질문지, 문헌조사의 3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총 225 개의 Q모집단을 구성하였다.

심층면접의 대상자는 흡연을 하는 중학생 5명과 중학교 양호교사 2명, 흡연 연구의 경험이 있는 교수 4명이었으며 면접시의 질문은 “중학생의 흡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으로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30분 - 1시간이었으며 면접시 대화내용의 누락을 막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양해하에 녹음하였다.

질문지를 시행한 대상으로는 간호학과 교수 3명, 중학생 6명, 중학생의 학부모 2명, 중학교 양호교사 2명 등이었으며 반 구조적 개방형 질문의 내용으로는 “중학생의 흡연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왜 중학생이 흡연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으로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표현을 그대로 기록하여 문항별로 구분해서 분류하였다.

문헌을 통한 방법은 중학생의 흡연과 관련된 서적과 신문 등을 이용하여 중학생의 흡연과 관련된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위의 3가지 방법을 통해 추출된 자료는 모두 문항별로 진술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였으며 여러번의 검토를 통해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된 진술문 총 75개의 Q 모집단을 완성하고 이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주제별로 공통적인 의미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진술문끼리 합치는 범주화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나타난 범주는 25개이었다(Table 1).

2) P 표본의 표집 방법

본 연구에서 P 표본의 선정기준은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중학생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남녀 중학생

〈Table 1〉 Contents of statements chosen Q sample

No	Contents of statements
1	I smoke to spend much time and become familiar with my friends.
2	Smoking does not make join with friends more frequent.
3	When smoking, I chose a toilet or unfrequent place rather than in front of others.
4	When I smoking, I hesitate and look about surrounding conditions.
5	I smoke when get angry or distressed.
6	I smoke when feel uneasy or want to free myself from troubles.
7	I smoke to have calmness.
8	Seeing a star performer's smoking scene makes me smoke.
9	The reason why I smoke, the close people around me smoke.
10	Smoking never makes people stylish.
11	Being conscious of others to look better, I smoke.
12	I feel good looking blow a smoke into the air.
13	Keep fingering a cigarette is one of the pleasure of smoking.
14	Smoking give comfort and vitality to me.
15	Smoking itself is joyful and comfortable.
16	When I feel easy and quiet mainly, I smoke.
17	When I study, if I have no idea and can't concentrate, smoking seems hit upon a capital idea.
18	Smoking gives me stimulation and makes things do well.
19	If I have no physical disorder right now, I will smoke continuously.
20	When I smoking, I do not take consideration about it's harmfulness to my health.
21	If run of cigarette and can't get on the spot, I feel impatient.
22	Smoking makes body weight lessen and have diet effect.
23	I stretch my hand to cigarette involuntarily.
24	When I smoking, I feel like an adult.
25	When my parents prohibit me form smoking, I feel inclined to smoke more.

각각 20명으로, 총 4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3) Q 분류(Q sorting) 과정과 방법

Q 분류를 위하여 P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Q 진술문을 강제분포 방법으로 분류하게 하였다. 각 대상자에게 Q 카드를 주고 대상자의 견해에 따라 찬성(+), 중립(0), 반대(-)의 3그룹으로 나누게 하여 Q 표본 분포도의 모양대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진술문을 분류할 때는 대상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해답이 없으며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마음이 바뀔 때는 카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같은 종 배열에서는 위, 아래의 점수가 같다는 것, 분포는 Q 표본의 분포도 모양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대상자가 Q 분류를 완성할 때까지는 평균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대상자가 분류를 한 후에는 연구자가 각 점수에 해당되는 진술항목의 번호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양 극단에 놓인 진술문(+4, +3, -4, -3)의 선택 이유를 질문하여 이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선택이유에 대한 이유를 듣고 기록하는데는 평균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Q요인분석은 주요인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중학생으로서, 2학년이 13명으로 32.5%를 차지하였으며 3학년은 27명으로 67.5%이었다. 대상자의 성별로는 남녀가 각각 20명이었으며 종교는 47.5%가 없었고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가 25.0%, 불교가 20.0%, 기타가 5.0%, 카톨릭이 2.5%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도 고졸이 65.0%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으로는 기술직이 35.0%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인 경우는 2.5%이었다. 어머니의 경

우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는 영업직과 서비스직이 각각 12.5%로 많았다. 가족 중 흡연을 하는 사람으로는 아버지가 5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조부가 20.0%, 형제가 17.5%이었으며 어머니가 흡연을 하는 경우도 10.0%이었고 조모가 흡연을 하는 경우는 7.5%를 차지하였다.

친한 친구 중에 흡연을 하는 친구가 있는 경우는 9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현재 대상자의 흡연 습관으로는 「가끔 피운다」는 경우가 22.5%, 「자주 피운다」는 경우가 77.5%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하루 흡연량은 1개피-20개피의 범위로 평균 8.1개피이었으며 10개피인 경우가 2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개피가 20.0%, 20개피가 10.0%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흡연시작시기는 중학교 2학년이 3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학교 1학년이 30.0%이었으나 초등학교 6학년이 15.0%, 5학년 이전도 7.5%를 차지하였다.

2. Q 유형의 형성

흡연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Q 요인 분석한 결과, 4개의 유형(type)으로 나타났다. Q 유형은 흡연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비슷한 진술문을 선택한 대상자끼리 묶여지게 되므로 각 유형 하나 하나는 흡연에 대한 태도에 대한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해하게 한다.

4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45.19%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 1유형이 4.50%, 제 2유형이 28.98%, 제 3유형이 7.21%, 제 4유형이 4.50%이었다(Table 2). 제 2유형이 28.98%의 설명력을 가지므로 흡연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4개 유형간의 상관계수는 <Table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4개의 유형에서 제 1유형과 제 2유형과의 상

관계수는 .27, 제 1유형과 제 3유형은 .26, 제 1유형과 제 4유형은 -.40, 제 2유형과 제 3유형은 .35, 제 2유형과 제 4유형은 .35, 제 3유형과 제 4유형은 .40로 나타났다. 그러나 Q 방법에서의 요인간 상관관계는 양적 연구에서의 요인분석방법과는 달리 각 요인간의 완전한 독립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요인들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므로 상관계수의 높고 낮음에 따른 요인추출방법의 논란은 제기되지 않는다.

흡연 중학생들은 제 1유형이 4명, 제 2유형이 20명, 제 3유형이 12명, 제 4유형이 4명으로 분류되었다.

3. 흡연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의 유형별 분석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유형별로 분석, 기술하기 위해 각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이 강한 긍정적(표준점수 +1.00 이상) 혹은 부정적(표준점수 -1.00 이하)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고 각 유형의 특성을 보다 잘 나타내기 위해 대상자들이 Q 분류시 적극 찬성(+3, +4)과 적극 반대(-3, -4)에 분류한 양 극단의 이유에 대해 면접한 내용과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참조하였다.

각 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흡연에 대한 태도 유형의 명명은 흡연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간호학자 3인, 국문학자 1인, Q 방법론 전문가 1인과 함께 논의과정을 거쳐 각 유형의 특성을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흡연에 대한 태도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 1 유형 : 자기 신념형

제 1 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4명으로, 이들이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담배를 피운다고 친구와 더 자주 어울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z=2.27$)이었

<Table 2> Eigen value and Percentages of total variance according to subjects' type

	type 1	type 2	type 3	type 4
Eigen value	1.7992	11.5924	2.8852	1.7993
Percentage of variance	.0450	.2898	.0721	.0450
Cumulative variance	.0450	.3348	.4069	.4519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4 types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1	1.00			
type 2	.27	1.00		
type 3	.26	.35	1.00	
type 4	-.40	.35	.40	1.00

고 그 다음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결코 사람을 멋지게 하지는 않는다」($z=1.54$),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담배를 피운다」($z=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담배를 피울 때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피우기보다는 화장실이나 사람이 없는 곳을 택하게 된다」($z=-1.93$)이었으며 그 다음은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게 된다」($z=-1.88$), 「타인을 의식하여 돋보이려고 할 때 담배를 피운다」($z=-1.47$), 「인기 연예인의 흡연장면을 보면 담배를 피우게 된다」($z=-1.13$),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 담배를 피운다」($z=-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또한 제 1 유형 대상자들이 특성을 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유형의 표준점수와 다른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의 차이로, 이러한 차이가 크게 나타난 진술문이 이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이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동의한 진술문으로는 「담배를 피운다고 친구와 더 자주 어울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이었으며 그 외에 「담배를 만지는 것은 흡연하는 즐거움 중의 하나이다」, 「공부할 때 생각이 잘 안 나가거나 집중이 안될 때 담배를 피면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결코 사람을 멋지게 하지는 않는다」 등이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게 동의한 진술문으로는 「담배를 피울 때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피우기보다는 화장실이나 사람이 없는 곳을 택하게 된다」이었고 그 외에 「담배를 피울 때 주위의 상황을 보고 머뭇거릴 때가 많다」,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 담배를 피운다」, 「담배를 피우면 마음의 위안이 되고 기운이 생긴다」 등이었다.

위와 같이 제 1 유형의 대상자들은 흡연시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흡연을 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주위의 눈치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흡연을 한다.

제 1 유형의 특성을 좀 더 잘 나타내기 위해 이 유형

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Q 분류 후 가장 찬성한 동의문들과 가장 반대한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면담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못 피운다면 아마도 피우지 않을 것이다. 남들은 신경 안 쓴다」, 「당당하게 피우는 것이 낫다」, 「친구들과 노는 것과 담배 피우는 것과는 다르다」, 「내 주위에 있는 아이들도 안 피우는 아이도 있다」, 「누구든지 피우는 것은 자기 나름이지」, 「내가 피우고 싶을 때 피우고, 내가 안 피우고 싶으면 안 피운다」,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다」, 「누구를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하니까」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제 1 유형의 대상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성인들도 흡연을 다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 없다는 일종의 과도한 자신감과 함께 어른의 권위에 대한 무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신체적 성장으로 볼 때 성인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은 행동을 원하고 자신의 기호를 스스로 선택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생각된다.

2) 제 2 유형 : 타인 의식형

제 2 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20명으로 이들이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담배를 피울 때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피우기보다는 화장실이나 사람이 없는 곳을 택하게 된다」($z=1.97$)이었으며 그 다음은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담배를 피운다」($z=1.90$), 「담배가 떨어지고 당장 구할 수 없으면 조바심이 난다」($z=1.26$), 「무의식중에 나도 모르게 담배에 손이 간다」($z=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 유형의 대상자들이 가장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게 된다」($z=-2.30$)이었으며 「인기 연예인의 흡연장면을 보면 담배를 피우게 된다」($z=-1.42$), 「담배를 만지는

(Table 4) Descending array of Z score and statement descriptions for type 1

No	statement	z score
2	Smoking does not make join with friends more frequent.	2.27
10	Smoking never makes people stylish.	1.54
5	I smoke when get angry or distressed.	1.11
7	I smoke to have calmness.	-1.09
8	Seeing a star performer's smoking scene makes me smoking.	-1.13
11	Being conscious of others to look better, I smoke.	-1.47
1	I smoke to spend much time and become familiar with my friends.	-1.88
3	When smoking, I choose a toilet or unfrequent place rather than in front of others.	-1.93

것은 흡연하는 즐거움 중의 하나이다」($z=-1.30$), 「타인을 의식하여 돋보이려고 할 때 담배를 피운다」($z=-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또한 이들의 특성은 제 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항목에서도 더 확실히 나타나는데, 제 2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긍정적 동의를 보여 흡연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무의식중에 나도 모르게 담배에 손이 간다」, 「담배가 떨어지고 당장 구할 수 없으면 조바심이 난다」로 제시되었다. 한편 제 2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동의 정도가 낮은 진술항목은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게 된다」,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내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다」 등으로 제 2유형과 다른 유형간의 흡연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시된 결과를 볼 때 제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흡연시, 남들 앞에서 피우는 것을 꺼리고 떳떳하지 못하게 생각하며 타인을 의식하지만 담배 피우는 것에 몰두하고 당장 구할 수 없으면 조바심이 나는 유형이다.

제 2 유형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제 2 유형에 분류된 대상자들이 면담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학생이기 때문에 주위상황을 먼저 보지요”, “화장실이나 사람이 없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지요”, “아무래도 학생이고, 교복도 입으면 보기 안 좋더구...”, “사람들이 나를 불량스럽게, 불량학생으로 볼 것 같아서”, “경찰한테 걸릴까 봐”, “어른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우린 아직 청소년이고 여자이니까”,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의 눈이 없어야 편하니까”, “사람들, 특히 애들한테 창피하니까”, “학생이니까”, “누가 보면 쪽 팔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주위의 시선을 피하고 싶으니까”, “걸리면 큰일나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구석을

찾고...”라고 응답하였다.

위의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제 2 유형의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타인을 의식하여 행동하며, 주위 환경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사회가 청소년 흡연을 금하며, 흡연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흡연을 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타인을 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흡연 행동은 대상자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가 흡연 청소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므로 타인을 의식하며 이에 민감한 대상자 자신도 부정적인 자아상을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3) 제 3 유형 : 불안 해소형

제 3 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모두 12명으로 이들이 가장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불안하거나 걱정거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담배를 피운다」($z=2.26$), 「담배를 피우는 것이 결코 사람을 멋지게 하지는 않는다」($z=1.46$), 「담배를 피운다고 친구와 더 자주 어울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z=1.26$),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내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다」($z=1.10$),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 담배를 피운다」($z=1.08$),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담배를 피운다」($z=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 3 유형의 대상자들이 가장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타인을 의식하여 돋보이려고 할 때 담배를 피운다」($z=-1.59$), 「담배를 만지는 것은 흡연하는 즐거움 중의 하나이다」($z=-1.49$),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더 피우고 싶다」($z=-1.42$), 「인기 연예인의 흡연장면을 보면 담배를 피우게 된다」($z=-1.27$), 「무의식중에 나도 모르게 담배에 손이 간

(Table 5) Descending array of Z score and statement descriptions for type 2

No	statement	z score
3	When smoking, I choose a toilet or unfrequent place rather than in front of others.	1.97
5	I smoke when get angry or distressed.	1.90
21	If run of cigarette and can't get on the spot, I feel impatient.	1.26
23	I stretch my hand to cigarette involuntarily.	1.07
11	Being conscious of others to look better, I smoke.	-1.02
13	Keep fingering a cigarette is one of the pleasure of smoking.	-1.30
8	Seeing a star performer's smoking scene makes me smoking.	-1.42
1	I smoke to spend much time and become familiar with my friends.	-2.30

다」($z=-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제 3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 동의를 높게 보여 흡연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큰 진술문은 「불안하거나 걱정거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담배를 피운다」,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 담배를 피운다」 이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진술항목을 살펴보면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더 피우고 싶다」, 「당장 신체적으로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담배 피우는 것을 계속하게 될 것 같다」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제 3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짜증나거나 화가 날 때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제 3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불안하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열 받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피니까...」, 「불안하거나 속이 상할 때 담배를 피면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 잊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냥 스트레스 같은 걸 풀려고」, 「담배 연기가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기분이 풀리고...」, 「짜증나면 담배가 생각나고 피우면 차분해 지니까...」, 「부모님한테 혼났을 때...」, 「시험이나 친구관계가 복잡해질 때 피우고 나면 그나마 생각이 안 나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피우면 기분이 괜찮아지니까」, 「머리가 심난하고 이성문제가 있을 때 피우면 그 문제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고」, 「짜증나고 우울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으니까」, 「부모님 꾸중때...」, 「필 때는 편안해지고」, 「무슨 일로 화가 났지만 피고 나면 흥분이 가라앉고...」, 「엄마랑 다툼이 있을 후에...」, 「피우고 나면 그 상황을 잊어버리니까...」, 「열 받으면 담배에 기대게 되고...」라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제 3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생활상의 스트레스, 답답한, 무료함, 화가 났을 경우 기분전환으로 흡연을 하는 유형으로 보여진다. 스트레스 자체는 흡연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는 평소의 흡연욕구 및 충동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h, Park & Whang, 1993). 이들은 모두 중학생으로,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매일 동일한 공부를 쉽없이 해야 하며 항상 시험에 시달리고 있고 경쟁이 치열하여 노력한 만큼 결과가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뚜렷한 탈출구도 없는 실정이다. 이 유형의 대상자는 공부나 그 이외의 스트레스가 흡연 충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헌에 의하면 청소년의 경우도 스트레스는 흡연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 제 4 유형 : 집단 소속형

제 4 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4명으로, 이들이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담배를 피울 때 남들 앞에서 멋있게 피우기보다는 화장실이나 사람이 없는 곳을 택하게 된다」($z=2.09$)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내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다」($z=1.86$),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담배를 피운다」($z=1.51$),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게 된다」($z=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담배를 피운다고 친구와 더 자주 어울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z=-1.57$)였고 그 다음은 「무의식중에 나도 모르게 담배에 손이 간다」($z=-1.26$), 「타인을 의식하여 돋보이려고 할 때 담배를 피운다」($z=-1.23$), 「인기 연예인의 흡연장면을 보면 담배를 피우게 된다」($z=-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Descending array of Z score and statement descriptions for type 3

No	statement	z score
6	I smoke when feel uneasy or want to free myself from troubles.	2.26
10	Smoking never makes people stylish.	1.46
2	Smoking does not make join with friends more frequent.	1.26
9	The reason why I smoke, the close people around me smoke.	1.10
7	I smoke to have calmness.	1.08
5	I smoke when get angry or distressed.	1.00
23	I stretch my hand to cigarette involuntarily.	-1.04
8	Seeing a star performer's smoking scene makes me smoking.	-1.27
25	When my parents prohibit me from smoking, I feel inclined to smoke more.	-1.42
13	Keep fingering a cigarette is one of the pleasure of smoking.	-1.49
11	Being conscious of others to look better, I smoke.	-1.59

다(Table 7).

제 4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 동의를 높게 보여 흡연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큰 진술문은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게 된다」, 「담배를 피울 때 남들 앞에서 멋있게 피우기보다는 화장실이나 사람이 없는 곳을 택하게 된다」,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내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더 피우고 싶다」 등이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진술항목을 살펴보면 「담배를 피운다고 친구와 더 자주 어울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결코 사람을 멋지게 하지는 않는다」, 「무의식중에 나도 모르게 담배에 손이 간다」, 「담배가 떨어지고 당장 구할 수 없으면 조바심이 난다」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 4 유형은 흡연하는데 있어서 주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고려된다. 이들은 친구들과의 친밀감을 위해 담배를 피우면 친구들과 더 자주 어울리게 된다고 생각하여 흡연 집단에 소속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제 4 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제 4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끊고 싶어도 친구들이 피니까 끊지 못 하죠”, “담배를 피면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지내고 좀 더 친해지죠”,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어울려서 피게 되고...”, “집에 있으면 안 피우는데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면 피우게 되고...”, “옆에서 피우는데 어떻게 나만...”, “어울리게 되니까...”, “혼자 안 피면 소외된 느낌도 들고...”, “애들 만나면 피우게 되는 거지” 라고

응답하였다.

위에서 제시된 결과를 볼 때, 제 4유형은 청소년들의 특성상 이들의 흡연충동은 동료에의 동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친구들에게 소외 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친구들과 다르다는 소외감 내지 외로움을 격지 않기 위해서 흡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Oh, Park과 Whang(1993)은 청소년기에 또래집단은 즐거움의 원천으로 이들의 즐거움과 각종 생활의 원천은 부모에서 또래로 옮겨오면서 또래로부터 배척 당하거나 소외당하는 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따라서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부모 등 기성세대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위 또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행동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Eckhardt, Woodruff 와 Elder (1994)도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가장 큰 영향요소는 흡연을 하는 친구들과 관계 유지 및 지속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이 유형 대상자의 흡연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흡연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흡연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공통적 태도

흡연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진술문의 4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일치점이 높은 진술문 즉, 흡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는 다음과 같다(Table 8).

대상자의 공통적 태도에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담배를 피운다」($z=1.38$)이었으며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타인을 의식하여 돋보이려고 할 때 담배를 피운다」($z=-1.33$) 「인

<Table 7> Descending array of Z score and statement descriptions for type 4

No	statement	z score
3	When smoking, I choose a toilet or unfrequent place rather than in front of others.	2.09
9	The reason why I smoke, the close people around me smoke.	1.86
5	I smoke when get angry or distressed.	1.51
1	I smoke to spend much time and become familiar with my friends.	1.11
8	Seeing a star performer's smoking scene makes me smoking.	-1.06
11	Being conscious of others to look better, I smoke.	-1.23
23	I stretch my hand to cigarette involuntarily.	-1.26
2	Smoking does not make join with friends more frequent.	-1.57

<Table 8> Consensus statements and average Z score

No	statement	z score
5	I smoke when get angry or distressed.	1.38
8	Seeing a star performer's smoking scene makes me smoking.	-1.22
11	Being conscious of others to look better, I smoke.	-1.33

기 연예인의 흡연장면을 보면 담배를 피우게 된다」($z=-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에서 일치점이 높은 진술문은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흡연을 하며 타인을 의식하고 대중매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이 4개의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진술문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중학생으로 감정 조절이 불안정한 사춘기에 있음을 고려할 때 자신의 감정 해소를 위해 혹은 감정에 휩쓸릴 때 흡연하게 됨을 알 수 있었고 자신의 개인적 감정 조절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 흡연은 청소년들 또래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어른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성차별에 대한 불만(여학생)으로 인해 야기되는데, 청소년기의 흡연은 거의 성인을 모방하거나 동료의식의 교감이 중요한 인자이다(Sohn, 2001).

흡연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행동이지만 담배를 피우게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중요 결정요인이므로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이들 요인이 정확한 지식 습득에서만 가능하다. 담배를 피우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래 친구나 부모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과 대중매체로 밝혀지고 있다. 담배를 배우게 되는 초반 청소년기의 동경은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자아를 정립하기 위함이다. 청소년기에 나타난 이러한 사회 심리적 욕구는 흡연을 통해 상징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성인이라는 허위의식을 상징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의미가 있으며, 성인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의미도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흡연이 성인이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통과 의식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친구와 같은 또래 집단과 강한 연대감을 확보하고 동질성을 크게 하기 위해 친구들과 간에 비슷한 행동양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볼 때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흡연은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한편으로는 기성세대에 대항하기 위한, 혹은 동조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그에 따라 흡연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공통적인 특성에서 흡연을 하는 중학생들의 흡연 행동에 대한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이들의 행위로부터 자신만의 세계를 발견하고자 하는 자기 이기적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흡연 친구를 가진 청소년은 담배를 안 피우는 친구를 가졌을 때보다 흡연 행동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흡연은 음주와 함께 다른 약물 사용이나 약물 중독에 이르게 되는 관문의 역할을 하기도 하므로 청소년에 대한 흡연 예방대책은 그 파급효과가 크다 하겠다(Sohn, 2001). 그러므로 청소년들에 있어서 흡연 예방 대책은 흡연 욕구에 대한 동기나 태도를 파악하고, 특히 흡연에 의존하기 이전에 그들 자신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과 신념,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흡연행위는 이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흡연에 대한 태도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의 목적은 흡연 중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에 대한 태도의 구조를 확인하고 이해하며 이를 금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간 호실무 적용에 지침으로 제공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각 개인의 지식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흡연에 대한 태도를 객관화시키기에 유용한 Q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흡연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의 구조는 4개의 유형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다음과 같다. 제 1 유형은 자기 신념형으로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흡연 시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흡연을 하는 유형으로, 이들은 주위의 눈치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흡연을 하는 자신의 주장이 뚜렷한 유형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제 2 유형은 타인 의식형으로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흡연 시, 남들 앞에서 피우는 것을 꺼리고 떳떳하지 못하게 생각하며 타인을 의식하지만 담배 피우는 것에 몰두하고 당장 구할 수 없으면 조바심이 나는 유형이다. 이들은 항상 주위 시선에 진전공급하여 자신의 주장을 뚜렷하게 내세우지 못하고 항상 타인을 의식하는 유형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제 3 유형은 불안 해소형으로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생활상의 스트레스, 답답한, 무료함, 화가 났을 경우 기분전환으로 흡연을 하는 유형으로 보여진다.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자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서, 성인에 대한 허위적인 모방을 끊임없이 시도하나 그들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다소 해결해주는 방법

으로 흡연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 모두 중학생으로,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큰 우리 나라의 경우,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하며 항상 시험에 시달리고 있고 경쟁이 치열하여 노력한 만큼 결과가 뒤따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신의 능력 밖의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불안을 흡연으로서 해결하려는 유형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제 4 유형은 집단 소속형으로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흡연하는데 있어서 주위의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친구들과의 친밀감을 위해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를 피우면 친구들과 더 자주 어울리게 된다고 생각하여 흡연 집단에 소속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흡연은 성인이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통과 의식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들은 친구와 같은 또래 집단과 강한 연대감을 확보하고 동질성을 크게 하기 위해 친구들과 간에 비슷한 행동양식을 따르는 유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대상자의 공통적 태도에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담배를 피운다」($z=1.38$)이었으며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타인을 의식하여 돋보이려고 할 때 담배를 피운다」($z=-1.33$) 「인기 연예인의 흡연장면을 보면 담배를 피우게 된다」($z=-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에서 일치점이 높은 진술문은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흡연을 하며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대공매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이 4개의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진술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4가지 유형에서 일치점이 높은 항목인 흡연에 공통적인 태도는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흡연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의 구조를 볼 때, 흡연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행위이지만, 담배를 피우게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중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는 부모 즉 성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세계를 추구하려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그들 주위 환경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흡연 중학생의 흡연을 시도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기신념형, 타인의식형, 불안 해소형 및 집단 소속형 등 4개의 독특한 흡연행동에 대한 태도를 발견하였다는 사실이다.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

어나서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자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흡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들의 사회 심리적 욕구를 흡연을 통해 상징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4가지 유형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흡연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 구조에 있어서 이들의 흡연에 대한 가치관, 신념 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각 유형의 대상자 특성에 따라 각각의 중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상자의 흡연 원인과 동기에 대한 대책이 각 유형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 신념형의 대상자에게는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유형의 대상자는 청소년의 특성상,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지식은 있으나 흡연이 주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즉 흡연의 동기에 대한 조사와 흡연의 장단점을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게 하고 금연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반항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타인의식형의 대상자에게는 개인에 대한 대책과 사회적 대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금연 교육과 함께 사회적인 제재, 단속 또한 강구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개인적 결단 이외에 사회적인 노력이 병행될 때 금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자신들의 흡연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은 흡연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 담배 구입 방지법의 실시나 담배자동판매기의 금지 등은 이 유형의 대상자에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집단 소속형의 대상자들은 그들이 사귀는 친구의 동조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건전한 또래 집단의 형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에게는 부적절한 성인 문화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래의 압력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또래 집단과 갖은 접촉을 하며 여가를 유익하고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흡연하는 집단에 소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보다는 여유시간을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운동이나 음악 감상 및 다른 여가 활동으로의 유도를 통해 유익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중학교 청소년이라는 공통적 특성과 함께 각 유형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중재 계획의 수립을 통해 이들에 대한 금연 교육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Adolescence Protection Association Health & Medication Part (2001). *Conference Datas*, July.
- Eckhardt, L., Woodruff, S. I., & Elder, J. P. (1994). A Longitudinal Analysis of Adolescent Smoking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School Health*, 64(2), p67-72.
- Ji, Sun Ha (1993).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Cigarette Advertisements Affecting Knowledge and Attitude of Smoking in a Group of Primary School Children. *Journal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19(1), 49-58.
- Kim, Il Soon(1992). *Company of Selling the Death*. Light and sound.
- Kim, Mun Shil(1997). Health Promotion of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Nursing*, 7.8 mon, 6-13.
- Kim, Shin Jung(1997). *Mother's Health Promotion for their Infant & Toddler*. Ewha Doctor's Degree.
- Kim, S. J. (1998) *Mother's health promotion behavior for their infant & toddl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 Health(1992). *Adolescence Smoking Problem & Strategy*.
- Korean Family Medical Association (1997). *Family Medicine*. KeChukMunwhaSa, 376-375.
- Moon, Sun Young (1995). *A Phenomenological study experienced with Smoking and Smoking Cessation*. Ewha Masters Degree.
- Oh Ik Soo, Park Kyung Ae & Whang Soon Gil (1993). *The Smoking Behaviors of Adolescence: the process of shaping habits, the actual conditions, strategy*. An open ground for Adolescence Conversation.
- Park, Jae Gap (2001). *Smoking & Health, Health Promotion & Smoking Cessation Symposium*.
- Shin, Sung Re (1995).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elf-Regulatory Efficacy Promoting Program and it's Effect on Adolescent Smoking*. Ewha Doctor's Degree.
- Sohn Seok Joon (2001). *The Problems and Strategy of Adolescence Smoking*. The program for the profession of smoking educator, p47-63.
- Su Mi Kyung (2000). *smoking Prevention & Smoking Cessation Business Through Public mass media*. Korea Public Health Society Associatio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Abstract -

Attitude Type about Smoking of Smoking Middle School Students

Han, Kyoung Soon* · Moon, Sun Young**
Choi, Yong Hee*** · Oh, Bok Chang****
Kim, Shin 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subjective structure of attitude. The method was based on a Q-Methodological approac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were four categories of smoking middle school students' attitude about smoking.

The first type named Self Belief type that

* Department of Nursing, ShinHeung College
** Department of Nursing, ShinHeung College
*** School nurse, DoBong female middle school
**** School nurse, NaUoo middle school
*****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this type didn't sensible of their surrounding persons when they were smoking and they also were responsible for strong opinion at their behavior. The second type named Other's Awareness type that they were seen the behaviors they always have to see other person when they were smoked, but if they didn't smoke or have tobaccos they feel heavy and are restless. The third type named Solving of Anxiety type. They first used to smoke when they wanted to solve their anxiety, stress, awkwardness and angry. The fourth type named A Sense of Belonging Group type. This type followed if their friends were smoking they also did it with them. As to grasping of their

motivation to smoking of middle school of students with smoking, they felt some intimacy and same quality each other.

In consideration of various types of attitude about smoking, it was very necessary important to grasp the meaning because we were known about attitude, belief etc. And then Through getting hold of the meaning, we could understand with their thought and value of Students in middle school. Besides, as a substitute for the students were depending on smoking purposelessly will fix right self-confidence.

Key words : attitude about smoking, middle school students